

II. 主要 懸案

1. 鄧小平 死亡 臨迫과 中國內 情勢

- (動向) 지난 2월 首都鐵鋼 周冠五 父子에 대한 비리 조사를 시작으로 북경시 고위층과 일부 “太子黨”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실시됨
- (目的) 江澤民 총서기에 의한 이번 조치는 사회·정치 문제화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제고, 반대파 제거, 중앙 정부의 입지 강화 등 다방면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影響) 부패 일소라는 뚜렷한 명분하에 실시되는 이번 조치로 江澤民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분명함. 그러나 이를 계기로 江의 반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제공하고 있음
- (企業의 對應 方案) 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원활한 對中 투자와 교역을 위해 점차 “정상적인 절차”를 주로 하고, “인맥 활용”을 꺾고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함

○ 動向

- 지난 2월 16일 북경 首都鐵鋼 周冠五·周北方 부자의 비리 문제를 시작으로 陳希同 당서기를 비롯한 북경시 인사들의 부정부패 관련 수사에 착수함
- 鄧小平의 후계자로 黨·政·軍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江澤民은 자신의 실제적인 권력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하나로 부정부패 일소를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원로들과 지방 세력들이 대응함으로써 당내 권력 투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最近 發生된 事件들의 意味

-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江澤民의 이미지 제고
 - 중국내 부정부패 문제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 발단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일 정도로 심각함. 특히 원로 혹은 전·현직 고위층의 자제들로 구성된 “太子黨”에 의한 비리는 원성을 사고 있음
 - 따라서 江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부패의 일소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지도자로서 입지 제고를 위한 좋은 구실이 되고 있음
- 지방 세력에 대한 경고성 조치
 - 이번 조치에서 북경시 고위층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정책을 무시해온 북경시측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임
 - 중앙 정부가 북경시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앙의 각종 시책에 대해

- 반발이 심한 지방 세력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볼 수 있음
- 반대파 숙청을 통한 “상해파(江澤氏를 중심으로 한 상해 및 주변 지역 출신)” 인물 영입 확대
 - 최근 숙청으로 공식 중인 주요 직책이 상해파 혹은 동조 세력 인물들로 채우고 있음.
 - 江澤氏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는 반대파 제거와 자신의 세력 확대가 맞아떨어지는 셈임.
 - 당내 권력 투쟁 진입 가능성
 - 북경파의 거점인 북경시 고위층에 대한 최근 조치는 鄧小平의 사망 압박과 맞물려 당내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문화대혁명(1966-1976)」 당시 북경파와 상해파간 권력 투쟁 경력을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임

○ 評價 및 展望

- 江澤氏은 이번 조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즉, 당내 자신의 권력 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차기 지도자로서 참신하고 강력한 이미지 구축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鄧小平 격하 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성급한 분석으로 사료됨. 아울러 鄧小平의 자녀를 비롯한 일부 핵심 太子黨에 대한 처벌은 원로들의 견제와 혁명 원로의 자녀라는 이유로 유보되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금년 7월 개최될 “5中全會(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전후한 인사 개편을 통해 江澤氏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
- 향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 부재와 지방 세력의 발언권 확대로 당내 인맥을 지금까지와 같이 보수파와 개혁파로 구분하는 것은 그 의미가 줄어들고, 그 대신 출신 지역에 근거한 파벌의 의미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企業의 對應 方案

- 최근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對中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단지 북경시 인물과의 관계에만 치중해 온 기업이나 북경 지역에 진출한 일부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 혹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어느 한 파벌에 치중되는 것보다 다양한 인맥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각 지역별 인맥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아울러 향후 중국 내부 경제 질서 확립 추세에 대비, 우리 기업의 對中 활동도 점차 “정상적인 절차”를 노로 하고, “인맥 활용”을 副로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

(김 정 군)